

# 성인학습자의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

조혜영<sup>1</sup>, 오세원<sup>2\*</sup>, 박현옥<sup>3</sup>

<sup>1</sup>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승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sup>3</sup>청운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

##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lipped Learning Perception and Level of Adult Learners, Cooperative Self-efficacy, and Convergence Major Curriculum Perception

HyeYoung Jo<sup>1</sup>, SeWon Oh<sup>2\*</sup>, HyunOk Park<sup>3</sup>

<sup>1</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nkuk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Social Enterprise, Ch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충청권역 LiFE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 177명이다. SPSS 23.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기간은 2022년 8월 부터 11월 까지 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보면, 플립러닝 인식의 학습효과성 인식과 흥미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플립러닝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리더십 발휘, 의견교환, 의견평가, 의견통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 인식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A대학교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플립러닝을 통한 혁신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자 참여형 역량중심의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lipped learning perception and the level of adult learners, cooperative self-efficacy, and convergence major curriculum perception. As subjects of the study, we enrolled 177 adult students of University A, which runs the LiFE project in Chungcheong Province. The study period was from August to November 2022.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with SPSS 23.0 and AMOS 22.0. We obtained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focusing on the convergence major curriculum perception factor, the perception of learning effectiveness in flipped learn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interest. Leadership of cooperative self-efficacy, opinion exchange, opinion evaluation, and opinion integr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measurement and the structural models were found to be suitable. We established that cooperative self-efficacy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process of flipped learning perception, affecting the perception of the convergence major curriculum. Therefore, cooperative self-efficacy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process where the level of flipped learning affected the perception of the convergence major curriculu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they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convergence major curriculum for adult learners in University A. In addition,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an adult-friendly curriculum, we propose a plan for student-associated competency-based education by applying an innovative teaching method through flipped learning.

**Keywords** : Adult Learners,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Flipped Learning Level,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SEM(Mediating Effect)

본 논문은 2022년도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Corresponding Author : Sewon Oh(Soongsil Univ.)

email: 7@ssu.ac.kr

Received December 27, 2022

Revised February 8, 2023

Accepted March 3, 2023

Published March 31, 2023

## 1. 서론

“문 닫는 대학 더 늘어난다…대안으로 떠오른 '평생교육' 전환[1]”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 도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대학에서 갖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교수방법과 교육과정, 그리고 전공과 연계된 진로설계를 통한 취업과의 연계 등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2].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 가능한 대안은 융합전공을 통한 학제 간 장벽을 허물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대학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전담 단과대학을 설치하는 대학이 점점 증가하는 등 학생 구성원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3]. 성인학습자는 재학생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여 의도를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교육에 참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생활 중심적 학습을 선호하므로 삼모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중심의 경험학습을 통해 인생설계를 도와주어야 한다. 때문에 무엇보다 성인학습자들에게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전공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융합교육은 세계 각 대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문 간 경계를 허물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제 더 이상 기존 전공만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2(학생의 전공이수 등)를 보면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4]”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전공의 장벽을 허물고, 학제적 융합을 피하여 융합적 사고를 목표로 원활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융합전공은 성인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면서 삼모작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에 유연한 환경을 통해 학습공간에 제약받지 않으면서 활동을 통한 역량 중심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5].

그렇다면, 융합전공을 성인학습자에게 적용할 때, 가장 적합한 교수방법은 무엇인가?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사전학습을 통해 숙지하는 등 능동적인 학습을 요구한다[6]. 학습에 대한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배려가 필요한 성인 학습자에게 플립

러닝 적용은 학습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유지하면서 학습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는 점[7]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할 수 있으므로[8] 사회생활에 얽혀 있는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방법이라 할 수 있다. 플립러닝 방법을 수업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여부가 플립러닝 강조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9] 결국, 학습 플랫폼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학습의 콘텐츠 제작에 많은 시간이 할애 된다는 점[10,11] 그리고 사전학습은 본 학습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6]은 플립러닝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면서 학습자 참여형 학습을 이끌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을 알아보고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육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육환경에 대해 어떠한 관념과 태도를 갖느냐이다[12]. 합리적 행동 이론에 의하면 행동의 의도는 실제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데 의도성은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1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행동에 대한 의식 역시 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지속성을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플립러닝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플립러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학습의 중도탈락을 야기하는[14] 등 학습 참여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습에 대한 내용과 평가 그리고 분량 등 개인 학습 양식과 집단 유형을 고려한 플립러닝 수준은 학습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15]. 실제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한 결과 성취가치, 내재적 가치, 효용가치, 만족도 측면과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5]. 또한 플립러닝 수업을 적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학습에 대한 가치를 의미하는 교수실재감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연구결과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은 교육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협력적 효능감은 공동학습에 협력하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며 리더십의 발휘, 의견교환, 의견평가, 의견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16].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협력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학습에 참여도를 향상시켜 준다[17].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 효능감은 소그룹 성과에 잠재력을 가진 요소이므로[17]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립러닝 적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에 대한 인식은 수업의 참여의도와 정적 상관관계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로 볼 때[9] 융합전공 교육과정에서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플립러닝 수준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이고 영향을 주고 있음을[15]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도 플립러닝 수준이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플립러닝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인 학습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러한 측면에서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학습참여가 성공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플립러닝 수업은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2]. 또한, 성인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준비성을 알아본 연구가 진행되었다[3]. 그러나 아직까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의 유형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상이하지만, 연구변인과 관련해서 보면, 플립러닝 인식은 수업 참여의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영향을 주고[9] 플립러닝 수준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러나 플립러닝의 효과성이 검증된 연구가 있는 [5,9,19] 반면, 전통적인 강의방법과 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존재하기 때문에[20,21] 이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다양한 연구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를 위한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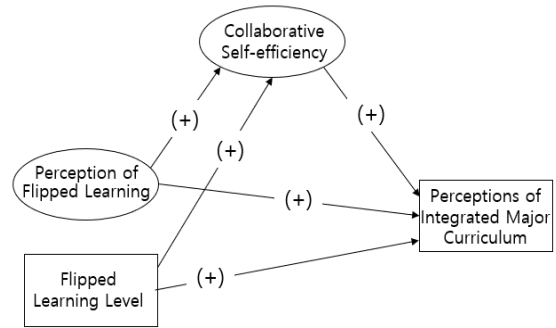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충청권역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 중 연구에 참여하길 희망하면서 동의함에 체크한 206명 가운데 본 연구변인인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의 결측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 후, 177명(85.9%)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결측치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례 수가 상의함을 밝히는 바이다(Table 1 참조).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pec.	n	%	N
Gender	Male	61	34.5	177
	Female	116	65.5	
Grade	freshman	61	34.7	176
	sophomore	47	26.7	
	junior	39	22.2	
	senior	29	16.5	
age	under 30 years	9	5.1	177
	30-39	53	29.9	
	over 40 years	115	65.0	
major	Social welfare Counseling	38	21.5	177
	Business Start-up	36	20.3	
	Social Enterprise	36	20.3	
	Beauty Industry	26	14.7	
	Real Estate Management	12	6.8	
	Youth Counseling education	29	16.4	
Minor:Double Major	yes(Minor:Double Major)	65	37.1	175
	no(single major)	110	62.9	

성별은 남자 61명(34.5%)과 여성 116명(65.5%)으로 여자가 더 많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61명(34.7%)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학년 47명(26.7%), 3학년 39명(22.2%), 4학년 29명(16.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40세 이상이 115명(65.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0-39세 53명(29.9%), 30세 미만 9명(5.1%)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는 사회복지상담학과 38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창업경영학과 36명(20.3%), 사회적기업학과 36명(20.3%), 청소년상담교육학과 29명(16.4%), 뷰티산업학과 26명(14.7%), 부동산경영학과 12명(6.8%) 순으로 나타났다. 부·복수전공 유무를 보면, 단일전공 110명(62.9%), 부·복수전공 65명(37.1%)으로 단일전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2 연구도구

### 2.2.1 플립러닝 인식

플립러닝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으로 분석하여 타당화를 검증한 문항[9]을 사용하였다. 타당화하여 사용한 문항을 보면, 플립러닝 인식 10문항 중 학습효과성 인식 5문항, 흥미수준 5문항으로 하위요인을 구분하였다[9].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플립러닝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라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보면, 플립러닝 인식 전체는 .925이며, 하위요인인 학습효과성 인식 .936, 흥미수준 .774로 나타났다.

### 2.2.2 플립러닝 수준

플립러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 수준을 알아본 문항을 사용하였다[15]. 5점 리커트 척도 총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플립러닝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보면 .927로 나타났다.

### 2.2.3 협력적 자기효능감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 검사지(Self-Efficacy for Group Work Measure)[16]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적 자기효능감으로 알아본 문항을 사용하였다[22].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총 19문항으로 하위요인으로는 리더십의 발휘 5문항, 의견교환 5문항, 의견평가 3문항, 의견통합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보면, 협력적 자기효능감 전체는 .970이며, 하위요인인 리더십 발휘 .887, 의견교환 .904, 의견평가 .837, 의견통합 .907로 나타났다.

### 2.2.4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 S대학교에서 매년 수요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문항의 일부를 발췌하여 교육학 박사 이상 3명에게 문항 검토를 받았다.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융합교육과정(전공+국가자격증 연계) 교과목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2) 융합교육과정(전공+국가자격증 연계)은 나의 진로(취업, 창업, 진학 등) 설계에 도움이 된다', '3) 융합교육과정(전공+국가자격증 연계)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실무역량을 배울 수 있다', '4) 융합교육과정(전공\_36~55학점+국가자격증 연계\_30~50학점) 교과목의 난이도와 학습양은 적절하다', '5) 융합교육과정(전공+국가자격증 연계)이 신설되면, 이를 이수할 것이다', '6) 융합교육과정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은 나에게 중요하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Coefficient를 보면 .945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한 연구변인들의 Cronbach's  $\alpha$ 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ronbach's  $\alpha$  of the research variable

	Cronbach's $\alpha$	item
1.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925	10
1-1. Perception of Learning Effectiveness	.936	5
1-2. Interest Level	.774	5
2. Flipped Learning Level	.927	10
3. Collaborative Self-efficacy	.970	19
3-1. Leadership	.887	5
3-2. Opinion Exchange	.904	5
3-3. Opinion Evaluation	.837	3
3-4. Opinion Integration	.907	6
4.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945	6

###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실행하기 앞서, 교육학 박사 이상 3명에게 2022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설문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기존 설문문항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는 성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검토를 받았다. 피드백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2022년 8월 25일부터 2022년 10월 13일까지 충청권역 LiFE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대학교 학사지원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온라인 플랫폼 설문지(https://naver.me/GtbQW0Df)를 배포하였다.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대한 동의함에 체크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설문문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206명이 응답하였지만, 본 연구변인에 모두 체크한 177부(85.9%)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 2.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특성은 빈도와 %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인 플립러닝 인식, 플립러닝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의 경향성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알아보고, 왜도와 첨도로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왜도의 절대값 -2부터 2범위로 확인하였고, 첨도의 절대값 -4부터 4범위로 확인하였다[23]. 셋째, 본 연구변인인 플립러닝 인식, 플립러닝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변인인 플립러닝 인식, 플립러닝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는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하 SEM)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측정변인인 플립러닝 인식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이하 CFA)으로 검증하였다. 집중타당성은 개념신뢰도(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이하 CCR)와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로 분석하였고, CCR .7이상과 AVE .5이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였다[24]. X2 값은 사례수에 민감한 지수이므로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았는데, NFI(normed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TLI(tur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이상의 기준

[25]으로 알아보았고, SRMR은 .08이하 기준[26], RMSEA는 .10이하 기준[27]으로 알아보았다. 다섯째,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알아보았다.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인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앞서, 연구변인의 경향성은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 Tendency and normality of variables

(N=177)

	M	SD	skewness	kurtosis
1.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3.90	.686	-.203	-.365
1-1. Perception of Learning Effectiveness	4.02	.732	-.277	-.327
1-2. Interest Level	3.78	.687	.010	-.358
2. Flipped Learning Level	4.12	.657	-.742	1.050
3.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3.93	.612	.074	-.605
3-1. Leadership	3.91	.655	.001	-.657
3-2. Opinion Exchange	3.96	.626	.100	-.750
3-3. Opinion Evaluation	3.90	.668	-.057	-.414
3-4. Opinion Integration	3.95	.611	.075	-.641
4.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3.97	.850	-1.175	2.152

연구변인의 경향성을 보면, 플립러닝 인식의 평균은 3.90점(SD=.686)이며, 하위요인은 학습효과성 인식 4.02점(SD=.732), 흥미수준 3.78점(SD=.687)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 수준의 평균은 4.12점(SD=.657)으로 인식에 비해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93점(SD=.612)이며, 하위요인인 리더십 발휘 3.91점(SD=.655), 의견교환 3.96점(SD=.626), 의견평가 3.90점(SD=.668), 의견통합 3.95점(SD=.611)으로 나타났다.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의 평균은 3.97점(SD=.850)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의 정규성을 보면, 왜도는 -1.175부터 .100범위로 나타났고, 첨도는 -.750부터 2.152범위로 나타나 왜도의 기준인 절대값 2와 첨도의 기준인 절대값 4범위 내로 확인되었다.

### 3.1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관계

연구변인인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Table 4 참조).

Table 4. Degree and Correlations among

	1-1	1-2	2	3-1	3-2	3-3	3-4	4
1.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1-1. Perception of Learning Effectiveness	1							
1-2. Interest Level	.868**	1						
2. Flipped Learning Level	.731**	.705**	1					
3.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3-1. Leadership	.564**	.577**	.545**	1				
3-2. Opinion Exchange	.577**	.565**	.569**	.889**	1			
3-3. Opinion Evaluation	.540**	.562**	.575**	.908**	.876**	1		
3-4. Opinion Integration	.576**	.576**	.628**	.911**	.900**	.914**	1	
4.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548**	.555**	.696**	.522**	.477**	.531**	.540**	1

\*\* $p < .01$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보면, 플립러닝 인식의 학습효과성 인식( $r=.548, p < .01$ )과 흥미수준( $r=.555, p < .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플립러닝 수준( $r=.696, p < .01$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리더십 발휘( $r=.522, p < .01$ ), 의견교환( $r=.477, p < .01$ ), 의견평가( $r=.531, p < .01$ ), 의견통합( $r=.540, p < .01$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3.2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

#### 3.2.1 측정모형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 인식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는 CFA로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 값은 6.999( $p=.537, X^2/df=.875$ )로 나타났으며,  $NFI=.995, IFI=1.001, TLI=1.001, CFI=1.000$ 으로 나타났고,  $RMSEA(LO-HI)$ 는  $.000(.000-.081)$ ,  $SRMR$ 은  $.0081$ 로 적합도 지수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참조).

Table 5.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X^2$	df	$X^2/df$	NFI	IFI	TLI	CFI	RMSEA(LO-HI)	SRMR
6.999	8	.875	.995	1.001	1.001	1.000	.000(.000-.081)	.0081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면,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리더십 발휘( $\beta=.952$ ), 의견교환( $\beta=.932$ ), 의견평가( $\beta=.949$ ), 의견통합( $\beta=.962$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9 이상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 인식의 하위요인인 학습효과성 인식( $\beta=.926$ ), 흥미수준( $\beta=.937$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9 이상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은 CCR .961부터 .989범위로 나타났고, AVE .925부터 .957범위로 나타났다. 측정모형 경로계수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Table 6. The factor value of measurement model & result of validity evaluation

path	B	$\beta$	S.E.	C.R.	P	CCR	AVE
Leadership	1.000	.952					
Opinion Exchange	.936	.932	.036	25.737	***		
Opinion Evaluation	1.017	.949	.036	27.965	***	.989	.957
Opinion Integration	.943	.962	.031	29.99	***		
Perception of Learning Effectiveness	1.000	.926					.961 .925
Interest Level	.950	.937	.063	15.191	***		

\*\*\* $p < .001$

Table 6에 제시한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Fig.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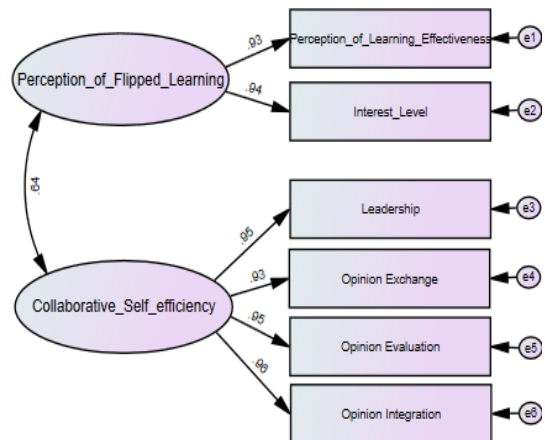


Fig. 2. Measurement Model

### 3.2.2 구조모형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EM으로 알아보았다(Table 7 참조).

Table 7. The result of proposition model

X2	df	X2/df	NFI	IFI	TLI	CFI	RMSEA(LO-HI)	SRMR
29.552	16	1.847	.982	.992	.985	.992	.069(.027-.108)	.0137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X2값은 29.552( $p=.020$ ,  $X2/df=1.847$ )로 나타났으며, NFI=.982, IFI=.992, TLI=.985, CFI=.992로 나타났고, RMSEA(LO-HI)는 .069(.027-.108), SRMR은 .0137로 적합도 지수가 매우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연구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The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path	B	$\beta$	S.E.	C.R.(t)	p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369	.409	.091	4.042	***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 Flipped Learning Level	.071	.058	.119	.594	.552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 Flipped Learning Level	.283	.299	.092	3.085	.002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699	.541	.115	6.058	***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246	.180	.100	2.450	.014
Perception of Learning Effectiveness →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1.000	.942			
Interest Level →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919	.921	.048	19.176	***
Leadership	1.000	.951			
Opinion Exchange	.937	.931	.037	25.525	***
Opinion Evaluation	1.019	.949	.037	27.837	***
Opinion Integration	.945	.963	.031	30.035	***

\*\*\* $p<.001$

플립러닝 인식이 협력적 자기효능감( $\beta=.409$ ,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반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beta=.058$ ,  $p>.05$ )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플립러닝 수준이 협력적 자기효능감( $\beta=.299$ ,  $p<.01$ )과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beta=.541$ ,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beta=.180$ ,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직·간접 효과, 총 효과를 알아보았다(Table 9 참조).

Table 9. The total effect of degradation result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409*		.409*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 Flipped Learning Level	.058	.074*	.131*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 Flipped Learning Level	.299*		.299*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541*	.054*	.595*
Perceptions of Integrated Major Curriculum → Collaborative Self-efficiency	.180*		.180*

\* $p<.05$

양측검증(two tailed significance)으로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로 검증한 결과, 플립러닝 인식은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beta=.409$ ,  $p<.05$ )으로 영향을 주고,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직접적( $\beta=.058$ ,  $p>.05$ )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간접적( $\beta=.074$ ,  $p<.05$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 수준은 협력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 $\beta=.299$ ,  $p<.05$ )으로 영향을 주고,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직접적( $\beta=.541$ ,  $p<.05$ ), 간접적( $\beta=.054$ ,  $p<.05$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직접적( $\beta=.180$ ,  $p<.05$ )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플립러닝 인식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이다. 또한, 플립러닝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하는 것이다.

Table 9에 제시한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Fig.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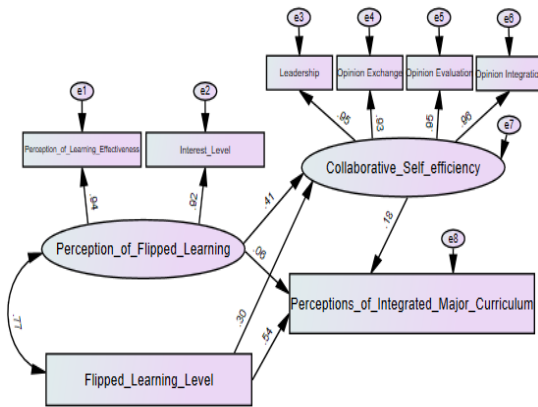


Fig. 3. Structural Model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요인을 중심으로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상관관계수 .522부터 .696범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플립러닝 인식은 수업 참여의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9]와 플립러닝 수준은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임을 밝힌 연구결과[15]의 맥락과 함께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한정되어 있어 비교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플립러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높은 수준 그리고 협력적 자기효능감은 융합전공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둘째,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 협력적 자기효능감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면, 플립러닝 인식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beta=.074, p<.0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립러닝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 인식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beta=.054, p<.0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은 상이하지만, 대학생이 인식한 플립러닝은 수업 참여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9] 플립러닝 수업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18]를 통해서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협력적 자기효능감이 학습 참여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17]로 볼

때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또한, 플립러닝 환경에서 협력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임을 밝힌 연구결과[28]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플립러닝을 적용한 교과목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음을 밝힌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이는, 본 연구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플립러닝 적용 교과목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아닌 플립러닝 인식과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점에서 검증하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립러닝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플립러닝 인식보다 수준이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만큼 성인학습자들의 플립러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인 학습자의 플립러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내용, 평가, 분량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하다. 플립러닝 수업 방식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학생 중심의 학습을 지원하는 물리적인 환경[9]뿐만 아니라 교수자의 역량과 무엇보다 학습자가 사전학습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6]. 성인학습자는 갖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령기 아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생활에 얽혀 있어 환경적인 요인으로 학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2]. 또한, 플립러닝에 대해 사전 학습에 사용되는 질이 낮은 콘텐츠[7,10,11]와 학습자의 이해력 유무를 알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7]. 즉, 플립러닝을 활용한 성공적인 융합교육을 위해서는 1:1 또는 학과별 학습컨설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담 직원의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이 많은 과목에는 플립러닝 수업이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결과[21]를 바탕으로 각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수-학습 방법으로 접근하여 플립러닝의 수준을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목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혁신교수법에 접근한다면 학습의 효과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성인학습자의 협력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는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29] 맥락



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학문의 경계를 넘어 융합교육을 통해 타과 성인 학습자 간의 많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온라인 플랫폼(ex\_LMS)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원격지원을 강화하여 학습의 결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성인친화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플립러닝을 통한 혁신교수법을 적용하여 학습자 참여형 역량중심의 교육을 이끌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플립러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습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학습의 시도가 가능하다[30]. 반면, 성인학습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낯선 교육환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교수법이라는 큰 맥락에서 이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는 충청권역 LiFE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한계를 갖는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되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UNN, More and more universities are closing... Conversion to 'lifelong education' emerged as an alternative [cited 2022 October 14], Available From: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5320> (accessed October 22, 2022)
- [2] S. S. Seo, M. K. Sim, "A study on the liberal arts curriculum development for adult learners: The case of Y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5, No.1, pp.179-194, February 2021. DOI: <https://doi.org/10.46392/kjge.2021.15.1.179>
- [3] H. Y. Jo, H. Y. Yi, H. O. Park,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appraisal self-respect, critical thinking and creativity of adult learn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10, pp.284-293, October 2022.
- [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cited 2022 September 6],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undefined> (accessed October 22, 2022)
- [5] M. A. Chen, Y. C. Chao, H. T. Hung, "Learning in a flipped english classroom from university student's perspectives", *Information and Education Technology*, pp.33-37, January 2018. DOI: <https://doi.org/10.1145/3178158.3178171>
- [6] B. Mull, Flipped learning: A response to five common criticisms, November Learnin [cited 2012 March 29], Available From: <https://novemberlearning.com/assets/flipped-learning-a-response-to-five-common-criticisms.pdf> (accessed October 21, 2022)
- [7] N. B. Milman, "The flipped classroom strategy: What is it and how can it be used?", *Distance Learning*, Vol.9, No.3, pp.85-87, August 2012.
- [8] K. P. Fulton, "10 reasons to flip", *New Styles of Instruction*, Vol.94, No.2, pp.20-24, October 2012. DOI: <https://doi.org/10.1177/003172171209400205>
- [9] H. Y. J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f flipped learning, teaching presence, and class participation intention: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flipped learning course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3, pp.433-446, July 2022. DOI: <https://dx.doi.org/10.22251/ilcci.2022.22.13.433>
- [10] H. Y. Jo,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class using team-based learning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chievement motivation, cooperative self-efficacy, cognitive learning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6, pp.685-696, August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16.685>
- [11] H. Y. Jo,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Nano-LAB subjects using flipped learning: Focusing on teacher efficacy, meta-cognition,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21, pp.501-513, November 2022.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2.22.21.501>
- [12] M. Fullan, *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p.353,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2007, pp.301-303.
- [13] M. Fishbein, I. Ajzen,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 p.480, Reading, MA: AddisonWesley, 1975, pp.1-480.
- [14] G. Packham, P. Jones, C. Miller, B. Thomas, "E-learning and retention: Key factors influencing student withdrawal", *Education and Training*, Vol.46, No.6-7, pp.335-342, August 2004.  
DOI: <https://doi.org/10.1108/00400910410555240>
- [15] H. Y. Jo, "Effect of participation in flipped learning class on continuous intention to participat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learner-centered flipped learning level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3, No.6, pp.486-495, June 2022.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22.23.6.486>
- [16] S. B. Alavi, J. McCormick, "The roles of perceived task interdependence and group members' interdependence in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 group contex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8, No.3, pp.375-393, September 2008.  
DOI: <https://dx.doi.org/10.1348/000709907X240471>
- [17] A. T. Pescosolido, "Group efficacy and group effectiveness: The effects of group efficacy over time on group performance and development", *Small Group Research*, Vol.34, No.1, pp.20-42, February 2003.  
DOI: <https://doi.org/10.1177/1046496402239576>
- [18] J. Enfield, "Looking at the impact of the flipped classroom model of instruction on undergraduate multimedia students at CSUN", *TechTrends*, Vol.57, No.6, pp.14-27, November 2013.  
DOI: <https://doi.org/10.1007/s11528-013-0698-1>
- [19] L. Deslauriers, E. Schelew, C. Wieman, "Improved learning in a large-enrollment physics class", *Science*, Vol.332, No.6031, pp.862-864, May 2011.  
DOI: <https://doi.org/10.1126/science.1201783>
- [20] I. Kozikglu, "Analysis of the studies concerning flipped learning model: A comparative meta-synthesis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struction*, Vol.12, No.1, pp.851-868, January 2019.  
DOI: <https://doi.org/10.29333/iji.2019.12155a>
- [21] S. Whillier, R. P. Lystad, "No differences in grades or level of satisfaction in a flipped classroom for neuroanatomy", *The Journal of Chiropractic Education*, Vol.29, No.2, pp.127-133, April 2015.  
DOI: <https://doi.org/10.7899/JCE-14-28>
- [22] H. Y. Jo, "Using team-based learning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chievement motivation, cooperative self-efficacy, cognitive learning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2, No.16, pp.685-696, August 2022.  
DOI: <https://dx.doi.org/10.22251/lcci.2019.19.22.1193>
- [23] S. Hong, M. L. Malik, M. K. Lee,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63, No.4, pp.636-654, August 2003.  
DOI: <https://dx.doi.org/10.1177/001316440325133>
- [24]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February 1981.  
DOI: <https://dx.doi.org/10.2307/3151312>
- [25] S. Hong,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9, No.1, pp.161-177, February 2000.
- [26] L. T. Hu, P. M. Bentle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Vol.3, No.4, pp.424-453, December 1998.  
DOI: <https://dx.doi.org/10.1037/1082-989X.3.4.424>
- [27] A. Bollen, J. S. Long,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308,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3, pp.1-308.
- [28] H. K. Park, J. M. Lee, "The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efficacy for group work, teachers' autonomy support, learning outcomes in flipped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24, No.1, pp.147-175, March 2018.  
DOI: <https://doi.org/10.15833/KAFEIAM.24.1.147>
- [29] C. O. Houle, *The inquiring mind: A study of the adult who continues to learn*, p.87,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61, pp.1-87.
- [30] M. W. Tolber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lipped Classroom and Critical Thinking, Academic Performance, Student Perceptions and Student Evaluations in an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Chattanooga, USA, pp.22, 2020.

조혜영(HyeYoung Jo)

[정회원]



- 2013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22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혁신교수법, 종단연구

오 세 원(SeWon Oh)

[정회원]



- 1999년 2월 : 송실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학과 (공학석사)
- 2011년 2월 : 송실대학교 경영대  
학원 전문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2022년 9월 ~ 현재 : 송실대학교  
학사팀장
- 2023년 3월 ~ 현재 :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박사 재학

<관심분야>

교육혁신, 교육과정, 교육성과

---

박 현 옥(HyunOk Park)

[정회원]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가정학석사)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주거환경학과 (이학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공간디자인, 주거복지, 성인학습자 평생교육